

## 주한미군 이끌 라캐머라, 파주 인근 DMZ 근무 이력

| 미2사단 예하 대대 작전장교로 근무

등록 2021-07-02 12:26:07



[서울=뉴스시스]김진아 기자 =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내외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에서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7.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스시스] 박대로 기자 = 2일 취임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 군사령관은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라캐머라 사령관은 미군 75유격연대장, 합동 특수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제4사단장, 18공정군단장 겸 이슬람국가(IS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사령관 등을 역임한 특수전 전문가다.

그는 육군 현역 가운데 최장기 해외파병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파나마, 아이티,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서 근무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소령 시절 한국에서 근무했다. 그는 평화안보체험 공간이 된 경기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미2사단 예하 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며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라케머라 사령관 취임식에서 "풍부한 실전경험과 함께 지략과 용맹함을 겸비하고 한국문화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라케머라 장군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우리와 두 번째 인연을 맺게 돼 매우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